

고쿠라쿠지(極樂寺) 본당 무나후다(상량패) 1장

야부하라(藪原) 지역 동쪽 중고지(中高地)에 있다. 임제종 묘신지(妙心寺)파에 속하며, 산호(山号)는 호조산(法城山)이라 한다.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하고, 오른쪽에 가섭존자(迦葉尊者), 왼쪽에 아난존자(阿難尊者)가 있다.

절이 세워진 개기(開基)는 겐키·덴쇼 연간(1570~1592) 야부하라 고슈 후루바타주에몬 마사쓰라(古畑十右エ門正貫)에 의해 모린 화상(茂林和尚)을 청하여 개산하였다.

당시에는 기소가와강 서쪽 연안의 구라로(倉籠) 땅에 있어 다이류잔(大龍山) 젠린지(禪林寺)라고 불렸으나, 거둬드는 수해를 피해 간마치우라(上町裏)로 옮겨 '물을 제거하고 땅을 일군다'라는 의미로 호조산 고쿠라쿠지(法城山極樂寺)라고 개칭했다.

후에 주오쿠 화상(忠屋和尚)의 간분 2년(1662)에 마을의 대형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여러모로 불편하여 간분 4년(1664)에 나카마치우라(中町裏)로 옮겼다.

이후 조쿄 3년(1686) 데라시마칸에몬(寺島勘右エ門)이 현재의 경내를 봉납하고, 겐로쿠 4년(1691) 젠가이 화상(禪外和尚) 시기에 무나후다(상량패)에 있는 당우(堂宇, 처마)가 건립되었다.

본당은 1942년까지 팔작지붕 양식의 초가지붕이었으며, 구조는 정면에 시쓰추(室中, 주지의 거실과 손님방을 겸하는 곳), 그 좌우에 상간(上間)·하간(下間)을 두었고, 시쓰추 안쪽에 불간(仏間, 본존 안치)을 두었으며, 본당 바깥쪽으로 기리메엔(切目縁, 킷마루)을 둘러 방장형식을 갖추고 있었는데, 낡아져서 그 해에 크게 수리해 지붕은 현재의 기와로 교체되었고, 내부도 복원되었다.

이후 쇼와 31년(1956년)에 고리(庫裡, 절의 부엌), 쇼와 41년(1966년)에 관음당(觀音堂)이 개축되었고, 쇼와 55년(1980년)에 본당의 위패당을 현재의 것으로 증개축했다.

정면 폭 9.5칸, 안쪽 길이 9칸이다.

무나후다(상량패)는 길이 73.3cm, 상폭 21.2cm, 하폭 18.6cm, 표면에 '묘음상원만불일증장 지동찰(妙吉祥圓滿佛日增長之棟札)'이라고 하여 건립 취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지 간잔국사(関山國師)부터 16대에 이르는 고비쿠젠가이(小比丘禪外) 옹, 때는 겐로쿠 4년 신미년 7월 길일(住持関山國師十六世小比丘禪外叟 干時元禄四辛未七月吉祥旦)'과 아랫쪽에 '목수 우시마루젠에몬(牛丸善右衛門) 도시치에몬(同助七郎) 가미무라지에몬(上村治右衛門) 오쿠야초자에몬(奥屋長左衛門) 우시마루 히코사부로(牛丸彦三郎)'라고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는 '이를 건립하여 관리 통치하는 자(建立之致支配者也)'로서 '시노하라 기헤(篠原喜兵衛)' 등 26명의 이름이 있다.

'기소무라 문화재 탐방' (1986.3.25 발행 기소무라 교육위원회)에서